

## 국가별 동향



### 남아프리카공화국

#### 계란소비 2배 목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두 사람 중 한사람이 계란을 매일 1개씩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국제계란위원회(IEC)에서 알려졌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란소비량은 1인당 100여개 정도이며 계란소비량을 높인다는 목표가 채워진다면 1인당 180개 정도의 계란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산란계 사료가격이 2007년 대비 32.2%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위생적인 계란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국내 계란을 보다 위생적으로 생산하면서 계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한다면 이 목표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World Poultry)



### 미 국

#### 옥수수, 사상 두 번째 생산량 기록

USDA는 지난 10월 9일 곡물년도(09년 9월~10년 8월)의 주요 농산물의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월 예상을 6,400부셀 웃돈 130억1,800만 부셀(7.6% 증가)로 상향 수정됐

다. 9월에 생육에 알맞은 기후가 이어져 1에이커 당 수확량은 전월예상보다 2.3부셀 높은 사상 최고인 164.2부셀(전년비 6.7% 증가)로 증가, 사상 두 번째의 생산량이다.

소비량은 캐나다의 사료곡물 수출 증가와 각국의 소맥(밀)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돼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용은 전월 예상보다 5,000만 부셀 감소하는 한편 사료용 등의 국내 소비량은 5,000만 부셀, 설탕의 공급 감소로 감미료에의 수요 증가로 식품, 종자, 공업용은 500만 부셀 증가했다. 기말 재고는 전월 예상을 3,700만 부셀 웃돌아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16억7,200만 부셀이 되었다. USDA는 옥수수의 생산자 판매가격을 전년비 10~25% 싼 3.05~3.65 달러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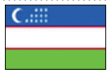
### 일 본

#### 프랑스 오리농장에 HPAI 발생으로 가금류 수입금지

프랑스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자 일본이 지난달 18일부로 프랑스산 닭고기 등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최소 90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에는 거위 간 요리인 푸아그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올해 2월에도 프랑스 서부 방데지방 오리 농장에

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난 6월까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프랑스산 닭을 먹는다고 해도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YTN)



## 우즈베키스탄

### 계란생산 급증

우즈베키스탄의 계란생산량이 금년 9개월동안 20억개를 기록, 전년대비 12.3% 증가하면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소유의 농장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10월 1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닭 사육수수는 274만수이다.(Watt Poultry)



## 인도네시아

### 2010년말 신종플루 백신 생산

인도네시아는 2010년 11월께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 무료로 공급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엔당 라하유 세타닝쉬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은 “국영 제약사인 바이오 파르마사가 내년 11월께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며 “내년말에 생산되는 백신 물량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타닝쉬 보건장관은 또 “신종플루 백신은 무료로 공급될 것”이라며 “신종플루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산모, 어린이 등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칸다르 바이오 파르마사 회장은 “내년 3월께 임상 시험을 거쳐 연간 2천700만정의 신종플루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sian Poultry)

##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 내년 1월 27~29일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인 아틀란타 세계 양계박람회(IPE)가 오는 1월 27~29일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종계·육계·산란계, 도계, 육가공장비, 계사설비, 급이·급수, 영양제, 동물약품, 케이지, 열풍기 환기, 사료처리 장비, 첨가제, 자동부화장비, 포장기술 등 가금류에 관련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 일정 : 2010. 1. 27(수)~29(금)
- 장소 :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 규모 : 참관객 19,000명 예상, 830개 업체 참여
- 주관 : 미국양계협회(U.S Poultry Association) **양계**